



빌 게이츠 에이즈 백신 위해 1,200억원 쾌척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회장이 에이즈 퇴치를 위한 백신 연구에 써달라며 1억달러(약 1,200억원)를 쾌척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게이츠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내와 공동으로 세운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 명의로 에이즈 퇴치 백신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에이즈백신 이니셔티브(IAVI)' 에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28)

AIDS는 국가적 차원의 "보안 문제" - 파월 美 국무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AIDS를 하나의 국가 보안 문제로 본다며 밝히고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있는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너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파월 장관은 AIDS는 '국가적 보안문제'라고 밝히고 "AIDS는 국가 보안 및 경제적 문제이며 특히 사하라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DS 퇴치를 위한 의회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인터넷, 2/5)

홍콩 에이즈 단체, 발렌타인 데이 맞아 콘돔 배포

홍콩의 에이즈 운동가들은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안정한 성"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콘돔을 배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천정이 없는 '러브 버스'를 타고 인파가 많은 거리를 누비며 민트, 오렌지, 딸기, 바나나 등의 향을 가진 색색의 콘돔을 나눠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또 콘돔과 함께 무방비 성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책자도 배포한다.

(로이터인터넷, 2/14)

에이즈 약값 떨어진다

인도 제약회사의 아프리카에 대한 에이즈약품 저가(低價) 공급 제의를 계기로 에이즈 신약 특허권과 가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제약업체에 변화가 예상된다.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인도 시플라사(社)는 약 2,500만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아프리카지역 환자를 위해 '국경없는 의사회'에 1인당 연 350달러에 약품을 공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시플라사는 영국의 그락소 스미스 클라인사와 뉴욕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사, 독일 베링거 잉겔하임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3종류의 에이즈 약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 생산하고 있다.

(세계일보, 2/17)



글락소, 빈국들 위해 할인 가격에 에이즈 약품 공급하기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에 의 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인된 HIV/에이즈 의약품에 대한 빈국들의 접근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회사 CEO인 장-피에르 가니에는 원격 전화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HIV/에이즈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들에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들 의 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2/21)

영국, HIV 감염자 수 기록적으로 늘어 - 지난 해 7% 증가

영국에서는 최근 AIDS바이러스인 HIV 보균자로 진단 받은 사람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영국 공중보건실험 서비스(PHLS)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HIV 보균자로 새로 진단받은 사람이 2천868명으로 전년 대비 7%나 늘었으며 보균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PHLS의 배리 에반스 박사는 "2년 연속 HIV 보균자 수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연애자나 양성애 남성들 중에 HIV 보균자가 여전히 많지만 지난 2년 동안에는 일반 남성들 사이에서도 보균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는 현재 2만여 명이 HIV 보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IDS 예방단체의 하나인 테렌스 히긴스 기금



은 실제로는 이보다도 1만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로이터인터넷, 1/26)

태국 HIV 감염 줄어들어

태국에서 지난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감염이 매춘부들을 제외하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태국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HIV 감염 위험이 높은 헌혈자, 임신부, 성병진료소를 찾는 남성들의 경우 HIV 감염이 줄어든 반면 매춘부들은 오히려 늘어났다.

99년에는 성병 감염자의 HIV 감염율이 9.09%였으나 지난해에는 5.9%로 줄어들었으며 헌혈자들도 0.44%에서 0.31%로 줄어들었다.

또 임신부의 경우도 비율이 1.74%에서 1.46%로 떨어졌다. 그러나 매춘부들의 경우는 감염율이 전년도 16%에서 지난해에는 18.6%로 늘어났다. 보건부는 HIV 감염 감소를 환영하면서도 한해의 통계로는 불충분하다고 경계하고 콘돔의 사용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7)

美대도시 남자 동성애자 10명 중 1명 이상이 HIV 감염자 - 美CDC

미국 대도시의 젊은 동성애 남성 10명 중 1명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이며 이들은 에이즈 감염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섹스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정부 연구진이 밝혔다.

11/17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린다 발레로이 박사팀이 볼티모어, 달라스,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애틀 등 미국의 6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23-29세의 젊은 남성 2천400명 이상에 대한 검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평균 12%가 HIV 양성 반응자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한 젊은 남성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인터넷, 2/8)

HIV바이러스치료제에 내성(耐性)가진 감염 환자 비율 급증

최근 미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HIV(에이즈 바이러스)감염환자 가운데 14%가 바이러스 치료제에 이미 내성(耐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HIV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치료에 앞서 약에 대한 내성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1995-'98년 사이에 발생한 감염 환자와 99-2000년 사이에 발생한 감염 환자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의 경우 3.5%, 후자의 경우 14%가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인터넷, 12/8)

日서 에이즈 환자의 인공수정 실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남편의 정액에서 바이러스를 제거, 부인의 체내에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돗토리(鳥取)대 병원이 작년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돗토리의대 의학부 산부인과 하라다 다스쿠(原田 隆)교수 등 의료팀은 99년 2월 대학윤리위원회에 인공수정을 신청, 작년 5월, 2차 감염위험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부부에 납득시키고 부인이 임신을 원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문서로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부인에 대한 감염 확률은 4천분의 1, 모자에 대한 감염 확률은 1만분의 1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뉴스, 1/8)

전문가들, AIDS "완치"에서 다소 자세 전환 중 - 美 정부 관계자

에이즈 바이러스를 단번에 퇴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 에이즈 전문가들은 이제 가능한 한 초기에 공격적인 방법으로 에이즈를 퇴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고 정부 보건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즈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강력한 복합 약물 치료를 처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치료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치료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인터넷, 1/26)



미국의 에이즈 고아들

HIV 예방 치료, 위험한 성행동 조장하지 않아 - 美연구진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HIV 치료제를 신속하게 복용함으로써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몇 년간 의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방 치료는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안도감을 주어 더 위험한 성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 UCSF의 J N 마틴 박사팀이 400명 이상의 동성애 및 양성애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HIV 예방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험한 성행동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인터넛,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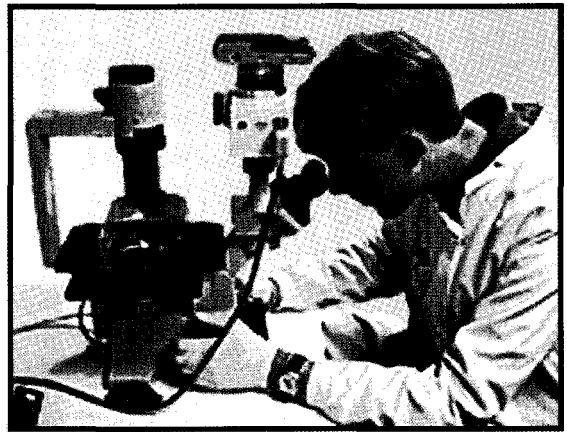
간질환, HIV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 - 美연구진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간질환이 HIV 감염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메사추세츠 보스턴 소재 뉴잉글랜드 의료센터의 바바라 맥커번 연구진은 1991년~1999년 사이 HIV 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간질환 발병 실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HIV를 억제하는 카테일 치료요법이 나오기 이전인 1991년에는 메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간질환이 HIV 환자들의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11.5%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1999년에는 간질환이 HIV 환자 사망



의 원인이 되는 비율이 50%로 대폭 증가했다. 환자 대부분은 주사약 사용을 통해 C형 감염에 걸렸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로이터인터넛, 2/24)

에이즈, 시골 지역에서 더 큰 문제 - FAO

개도국에서는 에이즈가 도시 지역 보다 시골 지역에서 더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4일 웹사이트 www.fao.org에 올린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FAO는 시골 지역의 경우 에이즈가 농업 기반 자체를 급속도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FAO에 따르면 전세계 에이즈 환자 및 HIV 보균자는 3천610만 명으로 이중 95% 이상이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최근에는 시골지역으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시골 지역의 경우 에이즈 및 HIV의 확산으로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데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영양 공급 및 식품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FAO는 "성인들이 에이즈로 숨지거나 않아 누우면서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재산 손실과 함께 농업 기술 전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FAO는 에이즈 환자 및 보균자가 많은 25개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지난 1985년 이래 700만명의 농민이 에이즈로 숨졌으며 앞으로 20년 내에 1천600만명이 추가로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이터인터넛, 1/5)